



한명숙 남원시의원,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뉴스더원과 시대일보가 주최한 2022년도 제15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기초부문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3선 시의의원인 한명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고 심도있는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한 건전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제8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현재 5분 자유발전 및 시정질문, 조례발의, 의원연구단체(대표) 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한명숙 의원은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조규철·이선덕 고창군의원, 지방의정봉사상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 조규철 의원과 이선덕 의원이 지난 27일 고창 상하능원에서 열린 제20차 전북시·군의회 의정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조규철 의원과 이선덕 의원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의원으로서 지역사회가 단결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서울 청소년들, 고창서 문화교류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고창의 산, 들, 바다를 찾아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서울시 청소년 20명과 지도자들이 고창을 찾아 2022 고창-서울 청소년 문화교류·활력연차는 고창에서 만나는 역사와 깃발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첫날 고창읍성을 탐방하고 고인돌유적지에서 반달돌칼만들기 체험에 참여 했다. 이튿날에는 깃발제작장과 상하능원을 방문하고, 마지막날은 선운사에서 무리악의 가을을 만끽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는 고창군 청소년 20명이 서울시를 방문했다. 첫날은 한강유람선을 타면서 멋진 서울의 경관을 즐겼다. 또 지도교사들과 조를 나눠 청와대, 광화문, 경복궁, 서대문형무소와 롯데월드 등 서울 곳곳을 누볐다. 지난 2015년부터 고창군과 서울시는 매년 우호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상대지역 청소년을 초대해 문화탐방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열렸다.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이길수 과장은 "지역 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의 폭을 넓힘으로써 역량과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간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 익산’ 사랑의 첫걸음

익산 출향시민 초청행사… 지역 향우회 고향사랑기부제 협약도

‘고향, 익산’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높여나가기 위해 전국 각지의 향우회장 및 임원 등 출향시민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30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에향운동본부(본부장 김진대)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맞아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출향시민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경익산시향우회, 재인천익산시향우회, 재대구경익산시향우회, 재안산익산시향우회, 재부천익산시향우회 등 5개 향우회 60여명을 초청해 고향을 떠난 향우회원들에게 익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을 선사했다. 첫날인 28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김진대 익산시에향운동본부장, 향우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화축제 전시장 백제왕궁박물관 등 관내 주요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출향시민 초청행사에서는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 향우회와 익산시 간의 협약식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각 익산향우회는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이강욱 재경익산시향우회장은 "내고장 익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발전하는 익산시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만큼 익산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향우회원들이 익산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고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시길 바란다"며 "익산 발전을 위한 전국 향우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콘텐츠 분야별 네트워킹 위한 창업자 간담회 진행

(제)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희석)은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창업자 사업화 참여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분야별 네트워킹을 위한 창업자 간담회를 10월 27일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오픈스페이스에서 진행했다.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은 도내 콘텐츠 창작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작 공간, 창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사업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자 간의 사업소개를 통해 협업도모 및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콘텐츠 분야별 대면 네트워킹을 통한 네트워킹 및 개선사항 논의와 사후 사업 고도화 및 관련 분야네트워킹을 진행했다. 또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창작에 필요한 장비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창작·창업활동에 있어서 지원요청 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최 측은 "콘텐츠 창작·창업자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다양한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창작·창업자들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자원재순환·나눔 실천... 노송광장서 판매 장터 열려

전주시의회-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지난 28일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와 함께 자원재순환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판매 장터를 열었다. 이날 판매 물품들은 지난 12일 시의회 로비에 설치된 기증스테이션에 모인 물품을 업사이클링한 제품과 공익상품, 기타 친환경물품으로 구성되어 매대를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의 판매 수익은 추후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된다. 전주시의회와 아름다운가게는 업무 협약을 따라 이후에도 자원재순환과 나눔의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동 의장은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함께해주신 의원·직원·시민 여러분과 아름다운가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로 더욱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김진영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공동대표는 "전주시의회와 함께한 오늘의 행사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완주군, ACE 아카데미 운영

완주군이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신규공무원 중 신청자 40명을 대상으로 제3기 신규공직자 ACE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교육은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령·진철교육부터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보고작성방법까지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신규공직자의 다각도 소통능력 기르기 위한 직장 내 비즈니스 매너와 민원응대법도 포함됐다. 또한 유희태 군수와 함께하는 리더와의 소통콘서트'를 통해 신규공무원들은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밝히기도 했으며, 특히 "내가 만들고 싶은 완주군?"이라는 주제로 군수와 신규공무원이 함께 완주군의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다. /완주=이재훈 기자



유희태 군수는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니 완주군이 젊어졌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며,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가진 여러분이 완주군에 혁신과 발전을 가져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재훈 기자

전주대-세계한인무역협회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 장영식)와 지난 27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월드옥타(World-OKTA) 회원과 전주대 간 산학협력사업 발굴 및 활성화 △해외 한인무역인 네트워크 글로벌 취·창업 지원 △글로벌 취·창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공헌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구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주대학교는 2018년부터 유럽 내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지회와 협력해 전주대 재학생의 글로벌 취업과 전라북도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HATCH 글로벌거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런던(영국), 바르샤바(폴란드), 이스탄불(튀르키예), 비슈케크(키르기스스탄), 파리(프랑스), 프랑크푸르트(독일), 밀라노(이탈리아), 빈(오스트리아) 총 8개 지역에 글로벌거점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박진배 총장은 "이번 월드옥타(World-OKTA)와의 협약을 통하여 전주대 LINC 3.0 사업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산학협력 및 취·창업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전주대 학생들과 가족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다리아픈 학생 위해 4층까지 번쩍' 전주 서원초 근무 백경록 사회복무요원

전북지방방무청(청장 권대일)은 전주 완산구에 위치한 서원초등학교와 인연을 맺고 성실하게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있어 소개한다고 밝혔다. 백경록 사회복무요원은 서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특급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백 사회복무요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수업을 위해 외부인 출입관리 및 체벌학습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리 수술로 걸을 수 없는 학생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자 1층에서 4층까지 업어서 이동자원을 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 또한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에는 병무청에서 선발하는 "자랑스러운 히어로(HERO)요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백경록 사회복무요원은 "학생들이 최대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일탈로 인한 편견과 오해의 시선에서 벗어나 든든한 동반자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대일 전북지방방무청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모범 복무사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널리 전파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적극행정을 실시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남원소방 의소대연합회, 소방기술경연 종합우승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공은태, 이마숙)가 지난 27일 무주군 등나무 운동장에서 개최한 2022년 전북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다. 이번 대회는 15개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165명이 참가했으며, 남원의소대연합회는 개인전 △남자 소방호스 끌기 1위 △여자 소방호스 끌기 1위와 단체전 △개인장비 착용탈레이 4위 △수관연장 방수주제 2위를 차지하며 종합우승 트로피와 우승기를 차지했다. 한편 백성기 서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기쁘고,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과를 내준 선수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 더욱 아름다운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지난 27일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된 전북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갈고 닦은 기술을 뽐냈다고 밝혔다. 전북도 소방본부와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고 무주군과 무주의용소방대 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소방기술경연대회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갈고 닦은 소방기술들을 펼쳐며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용소방대 간 화합을 위한 장이다. 소재실 장수소방서장은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소방기술력을 마음껏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각 시·군 의용소방대 간 및 의용소방대와 소방서의 협조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고관호 기자